

휴온스, 당뇨 분야 의료기 사업 확대

연속당 측정 'G5' 독점 판매

앱서 당 수치 모니터링 가능
당뇨 환자 '삶의 질' 향상 기여

휴온스가 당뇨 분야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한다.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가 미국 '덱스콤'의 연속당 측정기(CGM)인 'Dexcom G5'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는 올 10월 말부터 전세계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의 리더 기업인 덱스콤의 'G5'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연속당 측정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제품력과 편의성으로 잘 알려진 'G5'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G5'는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출시 요구가 쇄도했던 제품인 만큼,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5는 센서가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어 자동으로 연동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 측정된 값을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또 G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휴온스가 독점 판매하는 연속당 측정기 G5

'당(글루코오스)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소아 당뇨 환자들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앱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환자 맞춤형 당(글루코오스) 경고 알람 시스템이 고혈당 및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주고, 체액 흡수 또한 1일 2회로 줄여줘 당 측정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체액을 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G5'는 성인 환자대상 MARD가 9%, 2세 이상 소아 환자 대상 MARD는 10%로, 환자의 당 측정에 있어서 고도로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있다. MARD는 당 측정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정확성의 통계적 척도로, 낮은 %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편의성과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는 'G5'가 국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속당 측정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덱스콤의 기술력과 헬스케어 규제 분야 전문기업 사이넥스의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연속당 측정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약 280만명 규모이며, 이 중 소아 당뇨(1형 당뇨) 환자 수는 2만1000명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oul.co.kr

반려동물 털까지 싹~ '아이클레보 O5' 출시

유진, AI 로봇청소기 출시표

해외 50개국서 판매 목표
"2023년 매출 3000억 달성"

유진로봇 신경철 회장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청소기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 LG전자에 도전장을 던졌다.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로 이들 대기업에 이어 3위다.

신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제품인 '아이클레보 O5' 출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시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기업 중에선 (우리 회사가) 2위까지 올라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내에선 온라인시장 추가 공략, 해외에선 기존 30개국에서 50개국으로 판매지역을 늘려 당초 목표했던 '2023년 매출 3000억 원'에서 로봇청소기가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는 국내 브랜드 가운데 수출비중이 32%에 이른다. 유진로봇 전체적으로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2016년엔 로봇청소기로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8년 유진로봇의 전신인 유



유진로봇의 아이클레보 O5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진로봇틱스를 창업한 신 회장은 2000년부터 로봇 개발에 전념해 축구 로봇, 군사용 작업로봇(롭헤즈), 유아교육용 로봇(아이로비), 청소 로봇(아이클레보), 물류 배송 로봇(고카트) 등 다양한 로봇을 연구·개발하며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신 회장은 "2005년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를 처음 선보인 후 지금까지 수 많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산과 경쟁하며 수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제품은 기존의 강력한 흡입력에 AI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아이클레보 O5의 '강력한 흡입력'은 일반 무선청소기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유진로봇 관계자는 "흡입력과 함께 청소기는 잘 쓸어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아이클레보 O5는 V6블레이드와 콤팩트브러시를 통해 반려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 이 제품을 쓴다고 해도 한 달 전기료는 1000원 미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이클레보 O5가 직전 모델인 아이클레보 오메가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로봇청소기가 청소영역을 기억해 스스로 청소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청소도 가능하다. 흡입력, 소음, 청소패턴 등을 소비자가 선택해 수행하는 심야청소 모드도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78만명 목숨 빼앗는 B형간염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 상용화 될까

GC녹십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 재조합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GC1102(헤파빅-진)'의 만성 B형간염 치료 임상 2a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헤파빅-진'은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혈액(혈장)에서 분리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의약품이다. 이와 같은 의약품은 개발된 적이 없어서 '헤파빅-진'이 상용화되면 세계 첫

제품이 된다. GC녹십자는 '헤파빅-진'을 기존 혈장 유래 제품처럼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을 예방하는 용도로 개발하면서 범위를 넓혀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대한 임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임상은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헤파빅-진'과 핵산 유도제 계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는 아직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B형 간염 치료 극대화 방법을 찾는 연구로 분석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제와 항바이러스제와의 결합은 시도 된 적이 없는 분야"라며 "헤파빅-진이 기존 혈장분리 제품보다 항체 순도가 높고 바이러스 중화 능력도 뛰어나 연구 결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억명에 달하고, 이들 중 상태가 악화돼 간경변 내지 간암으로 발전해 연간 78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현대약품 미녹시딜에 비타민 더한 '탈모치료제' 출시

피지 분비 억제·항산화 효과

현대약품이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국내 최초 미녹시딜 복합제 '복합미녹시딜액 5%(사진)'를 4일 출시했다.

'복합미녹시딜액 5%'는 미녹시딜 성분으로 구성된 남성형 탈모치료제 '미녹시딜액 5%'에 두피 트러블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염산염'과 비타민 E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등 비타민 성분 2종이 함유된 제품이다.

'피리독신염산염'은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 지루성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토코페롤아세테이트'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두피를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해준다. 따라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라면 피부염 치료 후 제품을 사용해야 했던 기존의 미녹시딜 제품과 달리, '복합미녹시딜액 5%'는 지루성 피부염 환자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두피 염증이나 가려움을 억제해 주는 'L-멘톨' 성분까지

함께 함유돼 있어 탈모환자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한다.

'복합미녹시딜액 5%'는 60ml, 24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스프레이 타입의 용기로 되어 있어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뿌려주면 된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미녹시딜은 출시한 이후 국내 탈모 환자에게 꾸준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며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역시 탈모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출시한 제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종근당 항암신약 '캄토벨' 유효·안전성 추가확인

종근당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 2018)에서 캄토테신계 항암제 신약 '캄토벨(사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한 비교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캄토벨은 우리나라의 8번째 신약이자 항암제로서는 3번째 신약으로, 2003년 10월 난소암과 소세포암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2004년 발매됐다. 우수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현 빈도가 기존 약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수한 약물이다.

종근당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8년에 걸쳐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기관에서 소세포폐암 재발 환자 164명을 대



상으로 캄토벨과 토포테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평가 하는 후기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했다.

임상 결과 캄토벨 투여군에서 1명의 완전 관해(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가 확인됐으며 객관적 반응율은 캄토벨이 36.33%로 토포테칸 21.05%와 비교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 캄토벨 투여군의 약물을 투여하고 전체 생존 기간은 396일로 토포테칸 247일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약 5개월 가량의 차이를 보이며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결과를 확인했다. 약물 투여 후 암이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등의 무진행 생존 역시 캄토벨 투여군 144일, 토포테칸 115일로 약 1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임상으로 종근당은 확장 임상시험의 조건부로 허가 받은 국내 항암제 신약 중 최초로 소세포폐암과 난소암 2개 적응증에 대한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유경하 이대목동병원 교수

줄기세포 분야 '성과 창출형 과제' 선정

유경하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2018년도 제3차 보건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분야)의 성과 창출형 과제에 선정됐다.

'편도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응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효과 개선'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사업은 향후 1단계 연간 5억원(3년), 2단계 연간 5억원

(2년) 등 총 5년에 걸쳐 25억원의 연구비를 받게 된다.

유 교수가 연구 총괄 책임자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우수 연구자 지원사업인 이화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박주원 이화대 생화학학교실 교수, 비비에이치씨 산하연구소 STRI의 부소장 이상연 박사가 세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다.

유 교수는 "편도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착생 능력과 면역 조절



능력을 통해 이식 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합병증인 세균 감염과 출혈을 예방하고, 이식편대 숙주병은 억제하면서 이식편대 백혈병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